

전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강화 ‘박차’

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3년차 맞아 운영회의 열고 주요 추진 현황·기업 애로해소 처리 공유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이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재)전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추진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 처리 결과를 공유하며 특화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장인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등 산·학·연·관 주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I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이디엘 등 이차전지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특화단지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화단지 출범 3년차인 2025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김동구 도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2025년 4월 18일)이 완료돼 이차전지 산업이 지역 주력산업으로 명시되고 다양한 보조금 및 혜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 2월 6일 김동구 도의원 주재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특화단지 내 기업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로 인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AI 기반 교통신호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관과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봉근 편의 증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산업단지 봉근버스 운행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내 및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전북테크노파크는 이차전지 육성 및 발전 소식 등 관련 정보 안내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며 매달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이차전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노력도 더욱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사 담당자 간담회, 대표자 간담회 등 이차전지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025년 상반기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였으며, 특히 특화단지 출범 3년차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 것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등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기업 5개사에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기업 5개사 선도기업 육성

전북중소기업청, 익산주얼리 등 지정서·현판 수여식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등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기업 5개사에 수출·금융·R&D 등의 지원 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6월 17일(화) 익산주얼리협동조합(익산 소재)에서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이하 글강 프로젝트)에 지정된 기업들에게 지정서와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글강 프로젝트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

부 및 전북도 등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2024년도 수출액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지정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17개사가 글강 프로젝트에 지정되었으며, 이번 수여식에는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인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등 5개사가 참석했고, 지정단계가 유망 및 성장기업인 12개사는 6월 초 기업별로 지정서와 지정패를 전달했다.

/오상근기자

중기중앙회,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1월부터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을 위해 개최됐으며, △CBAM 개요 및 EU의 율니버스 패키지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등 중·중견기업의 데이터관리, △온실가스 체크리스트 및 인증 매뉴얼 활용 방법과 함께 △CBAM 컨설팅 우수사례와 △기관별 CBAM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CBAM 컨설팅 우수사례에서는 철강산 제조업체인 (주)코웰의 대응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EU-CBAM 대응을 위한 사내 전라과 함께 탄소배출량 추적관리 및 공정 개선 방법을 함께 공유했다.

발표를 맡은 박성재 (주)코웰 부장은 “EU-CBAM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배출량 감축 의지가 중요하며, 동시에 제조업 공급망 체계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오상근기자

중기중앙회, 간편인증 통해 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지원

네이버·토스·카카오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 본인 인증 받아 공제기금 가입·대출 개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대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다.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1만 7,000여개사가 가입 중이며 2024년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그동안 공제기금 비대면 가입 및 대

출 이용 시 본인 확인 수단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제한되어 있어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제기금은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직접 본인 인증을 받아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편리하게 공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금리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부진,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기업대상 전략설명회 개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기업대상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소재 응용제품의 기술 표준화 및 국내의 인증 기반 조성·확인을 통해 국내 탄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탄소소재 및 부품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국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소재 응용제품의 표준·인증 전략 및 정부지원 방안 소개하고, 국내 탄소소재 응용기술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기반 구축 사업 소개를 비롯해 △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단체표준화 제도 소개(한국표준협회) △표준개발 및 보급사업 성과와 향후 지원 방향 △탄소소재 및 복합재료 표준 개발 방향 △시험·평가 장비활용 방안 등 총 6개의 세부 발표가 이어졌다.

/오상근기자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연구 협력

농진청,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토론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제2차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연구 협력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업·축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 자료를 개선해 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눠 기관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합지영 연구사가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자료 개선 연구 추진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분과에서는 ‘배출량 시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순천대



김상윤 교수), ‘발작물 재배 시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한경대 박성직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수 연구사는 세 번째 분과에서 ‘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및 연구 추진사항’을 주제로 ‘개방형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을 발표했다.

종합 토의 시간에는 국가 통계 작성 시 농업·축산 분야 배출량 특성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연구 협력 및 교류가 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상근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